福田大將襲擊 爆彈事件의公判

피고세명에게사형구형 남어지한명은십년구형

복뎐대장(福田大將)습격폭탄사건공판은 이십칠일 오전열안시삼십오분부터 동경디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대법뎡에서우야재판장(宇野裁判長)흑뎐검사(黑田檢事)립회하에개뎡되엿다 방텽석에는사상가(思想家)주의자(主義者)노동자(勞働者)로

가득하고

법뎡내외에는 수십명 경관의 엄중한경계가잇섯는데 피고 고뎐대차랑(古田大次郎) 화뎐구태랑 (和田久太郎) 창지규차(倉知圭次)신곡여일랑(新谷與一郎)의비명이법뎡에나서매 고뎐의 친구중촌변호사(中村辯護士)는 고뎐의 학생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지난경과를 들어극히 유리한증언 (證言)을한후 우야재판장의

사실심리

와흑뎐검사의 극형론(極刑論)의론고가잇슨후 아래와가티구형을하엿다

殺人未遂爆發物取締違反　和田久太郎
殺人未遂强盜物損壞强盜殺人恐喝　古田大次郎
竊盜爆發物取締違反　倉知圭次
(以上은各死刑을求刑)
爆發物取締罰則違反　新谷與一郎
(懲役十年求刑)

이상과가튼구형이잇슨후오후에 무시계속하야변호사의변론이잇섯다더라(동경뎐보)

青森大火

오십여호소실 아즉도연소중

일본청삼현 삼호군소중야촌(青森縣三戶郡小中野村)실강운송뎜(實岡運送店)에서이십칠일오후에불이일어나 뎡거장을위시하야 민가오십여호를 소실하엿다는데 불은강한바람결을 따라아즉까지연소중이라더라

총독부에진정하매총독부에서도 력식국(拓殖局)과경유하야회래로조회중인바 일뎐명이상의 이주가실현하게되면 총독부에서는 상당한보조를하려고 구데안(具體案)을 강구중이라더라 (동경뎐보)

代金支拂의怠慢

불평이만흔 의주의잠견공동판매

이십이일부터 공회당에서 개시한의주군잠견공동판매 (義州郡蠶繭共同販賣) 에민원이자자하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대금은 이른날오전아홉시부터 지불하겟다고 하엿슴에 불구하고 우물주물하다가 오후두시에야 대금을 지불함으로 이삼십리나되는곳에서 온촌민들은 농사하기에 여가가업슴으로 빨리돈을바다가지고 가랴하나 가지못하고 빨리돈주기만 기다렷다하며 조합원의사정은 조곰도 도라보지안코 우물주물하야 시간상치지안흠 손해를 쉬첫다하야역시비난뿐이고 그것도 군당원의친한사람을 먼저 지불하고나서야 지불함으로 촌민은그러면 우리는 주지 안켓느냐 고질문까지 하얏다는데 당국자는조곰더ㅣ 조합원의리익을위하야각성함이 필요하겟다고 일반의불평이만타더라(의주)

安州署에重大事件

해외에서들어온청년세명을 돌연히검거하야엄중히취됴

지난이십사일안주경찰서고등계에서는돌연히활동을개시하야 동일밤 팔시경 안주군 신안주면송성리 (安州郡新安州面松城里)안휴식(安休植)과 안재홍(安載弘)(三○)을 테포하야자동차에 싯고돌아와 엄밀히취됴중인바 권긔안휴식 안재홍 두사람은 오래동안 남북만주에가잇다가 근자에집으로 돌아왓는데 사실내용은 비밀에부처고 발표치 아니함으로일반은매우궁금히생각하는중에이십오일 오전구시경에는 또안동현(安東縣)등디에 오래류 하다가수월전에 귀가하야 잇는안주성내 률산리(栗山里)최지훈(崔芝薰)을 검거하야도합세사람을 취됴중인데 내용은 매우중대한듯하다더라(안주)

굴이문허저서

공부의생명위태 방금구제책강구중

지난 이십륙일오후 요섯시경에 일본석천현 석천군길야곡촌(石川縣石川郡吉野谷村)에서 공사중인 신백산수력뎐긔(新白山水力電氣)사호굴(四號隧道)이 문허저서 그곳에서일하고잇든 공부일세명과교통(交通)이 끈허저버리엇슴으로 질식하여 죽을념려가잇서방금구제책을협의중이라더라(금택뎐보)

樺太에 朝鮮人移住를

연해주조선인이 계획중이라고

해삼위(海蔘威)와살가련 (薩哈嗹)연해주(沿海州)디방에 재주하는 조선사람으로삼천명 가량은일뎡한곳에 잇서서 안정한생활을 하지못함으로 이것을 구제하기위하야 조선사람사이에는 이때에화태(樺太)와북해도(北海道)에 조선사람을 이주식혀농사에 종사식히려고 구제책을강구중인데발긔인이조선

永興金組 移轉問題와

개인을위하는 금융조합리사

함경남도 영흥금융조합이던(永興金融組合)에대하야 후보디(鐵補地)인동읍내도뎡리(興井里) 백구번디에잇는토디이천여평을그저혜잇는 일인소실(小室)의방해와동조합 리사일인부총(富塚)의에매한태도를보고서내시유지조합원뎟십명이모혀협의한후대표자오인을선거교섭케하엿다함은긔보한바어니와그후리사부총은소실과

며번회합

이잇슨후결국천긔토디를조합에서천부사서수속하랴면대단히힘든다는청탁으로 그토디전부를 소실에게매가일천구백원에 사도록하야 조합에서 매평이삼원으로 사서사용하게되엿는데 이에 일반은소실의 밀계를아는바에 불평일반시민에게 긔디로매도치 아니할려이며 설덩매도한다하더래도 무리한 가격을요구할려인즉 리사인 부총개인을위하야 중의를무시함수 업슬뿐아니라 다시매표자로하여곰 최후교섭을 행하게하고 따라서어데까지든지 진행코저계획중이라더라

◇강바람은시원도하다……(평양부벽루에서)

良民을無理捕縛

亂暴한安溪駐在所警官 폭행으로일삼는근본순사 관내백성의원성이비등해

경북의성군안계주재소 (義城郡安溪駐在所) 에근무하는순사근본 유치(根本有治)는당디에온삼사년동안 그란폭한 행동을일일히다말할수업는바이제며개를말하면 지난봄당디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운동회때에당디공립보통학교(公立普校)에서는그의 초며를바다 생도를다리고갓더니그자는

무조건

으로 학생에게쪽행구라를 한일이 잇스며그외에관내백성에게 대하야 란폭한행동이한두번이아님으로일반의지비난이자자하든중십지난륙일에는술이 몹시취하야동면 위양동(渭陽洞)륙백십오번디에잇는안종태(安鍾泰)(三八)를아무죄도업시 포승을내여 묵거가지고무슨죄며범인이나 되는것 처럼이리커리로 끌고단이다가 당디토매동(土每洞)부근에와서는술이깨자 포승을풀어노으면서 하는말이 『취됴할필요가잇스니래일주재소로오라』 함으로그 안씨는무슨영문인지 알지못하고 그냥도라갓다는데 이를본사람들은 더욱분함을 참지못하야 여론이분분하다더라(의성)

公金橫領한書記

이백륙십원을

전남령암군곤일종면 (全南靈岩郡昆一終面) 회계원황석순 (會計員黃錫淳) 은공금이백륙십여원을 횡령소비한것이 발각되엿다는데 당해면장과군당국(郡當局) 에서는크게랑패하야선후책을강구중이라더라(령암)

非行이續續暴露

聲討計劃中의金組理事 사리축장으로일을삼고 조합원에게극히불친절

평양금융조합(平壤金融組合) 리사의 비행(非行)이 … [illegible]

白軍殘黨의末路

덕처업는손이되여표랑

[illegible]

海中에金塊이

드러내려고 작업중이다 歐洲時沈沒船

[illegible]

처음문자 지면으로 「자긔네는 십구일에『쉽로쏘』를내압바다십쳐마일짐히되는 바다에서 그배를발견하고 잠수(潛水)검사 한결과 떨관환이를랍업는것을 발견하엿는데 배는바로안진채 가려안첫승으로 공사하기에도 힘어렵게 될것승으로 멀지아니하야공사에 착수하겟다는데미의면보를 첫승으로이공사가 성공되는날이면 막대한리익이 되리라하야

당사자들

은돈이오동경쾌상회사에서도 떨편의 보수를밧고 또그부근에 침몰한배를건커내일권리를 엇게 되리라고관계자들은 매우깃거워 한다더라(문사뎐보)

不貞女의生男

아비가두명 소송까지생기여

전북 옥구군 대야면 복교리(沃溝郡大野面福橋里)에사는 리종렬(李鍾烈)은 전주대화뎡(全州大和町)에 현주하는뎡순원 (鄭順元)의 장자뎡두언 (鄭斗彦)(三○)을 상대로하야지난 오월이십륙일부로 전주디방법원에 실자확인급인도 청구소송(實子確認及引渡請求訴訟)을 뎨긔하야 오는삼십일에 공판긔일 이라는데 이제그내용을 됴사하건대임실군텬원면가락 (任實郡靑元面가락)사는 심경민 (沈敬敏)의처량귀순(梁歸順)(三三)은가뎡불화로 인하야그본부 경필과리혼(離婚)하기로

약속한

후작년이월십륙일에권긔뎡두언을맛나서부부가되야가려 살어오든바권주 서뎡에사는 권긔원고(原告) 리종렬의숙모되는 김셩녀(金姓女) 가량귀순에게 자조와서도만코뚝뚝한남자에게 시집가라는등여러가지말로 꾀임으로 귀순은그만그말에 취하야 몽년오월삼십에남편두언이 가업는 틈을 타서권긔김셩녀를 따러리종렬을 만나몃칠을 잇섯스나 남편을속이고 나온것이후회가 날뿐아니라그남편이든 뎡두언의 생각이쇠칠배가 업승으로최후로는득남편손에 죽기라도 하리라는 결심을 가지고바로 그달이십일일에다시두언에게와서 사죄 한후다시단락한 부부가 되야자미스럽게살는중 금년이월초뵈일에생남(生男)하엿든바 뜻밧게 원고리종렬은 그와가티 소송을데긔한것이라더라(전주)

日本燒嶽山爆發로 東京市街에降灰

이십칠일아츰네시경에

이십칠일 아츰네시경에 일본소악산(燒嶽山)이 폭발되엿다는보도가장야(長野)측후소에도착하엿는데 동경시가에 재가비와가티나리는것도이外닭이라더라(장야뎐보)

男便따라自殺

장사지낸후

충남 대뎐군구측면(忠南大田郡九則面)금고리 (今古里)청년윤(成天迺)의 둘재아들 주옥 (珠玉)(九)은 구뎐권에홍성녀 (洪姓女)(一四)와 결혼하야동거하여오던바 주옥은 우연히병에걸리어금년 오월팔일에 이세상을떠나고말엇는데남편을여의고애통하던홍성녀는그시부를위로하고일변미음을권하나종시마시지안코말하되『네가먹으면나도먹으려니와네가먹지아니하면나도먹지안코말겟노라』고 한즉홍성녀는먼저미음을마시며그시부에게권하야마시게하고삼일만인오월십일에그남편의시톄를안장하고도라와서 흔연히 그시부를위로하고 그날밤 밤깁고적막한틈을타서 양재물을 만히먹고그자리에서죽어버렷다더라(청주)

無責任한郵便所

간곳을알수업는위톄금 피해자들은소송을데긔

전남광양우편소(光陽郵便所)에서는 보통우편물은 물론이오신서또는서류(信書及書類)등중요한 우편물을 직접본인에게배달하지아니하고 술집에나 또는다른사람에게간접(間接)으로전하는 폐단이종종잇슴으로 일반군민들의 항상비난이 자자하든중음력사월초순경으로부터지금까지위체금(爲替金)합계구십여원이직접수취인에게는오지아니하고부지거처(不知去處)가되얏다가 이지음에 마츰내

발각이되

얏는데이제그자세한내용을 듯건대 광양군광양면 도월리(光陽郡光陽面道月里) 에본적을두고현재일본광도현 (現在日本廣島縣) 에가서로동하는 정홍석(鄭弘錫) 홍삼두(洪三斗)와 리영옥(李永玉) 외일인은 일본내곤에서모든 신고와 곤난을겪거가며 피와땀을팔아고국에잇는 부모와 처자의간난한생활을보조하려고권긔뎡홍석은 사월오일에 현금삼십원과홍삼두는 사월초순에 현금이십원과리영옥은 오월칠일에 현금이십원을 우편위톄로 자긔들의가족들에게 송금(送金) 한것이지금까지

정당한

수취인의 손에는 들어오지 아니하고다른사람이권부 수취하얏슬뿐 아니라 이사실을숨기고저 함인지그후로부터는 권긔피해자 (被害者)로부터자긔가족에게 오는서신은 한장도배달 되지아니한사실이 잇슴으로 이에대하야계원(係員)에게 무른즉이 것은대단미안합니다 아마면직당한 배달부의 소위인듯함으로 밧금비밀히 됴사중이라고만 하는데 권여하간 권긔피해자들의 가족은크게분개하야 당디우편소장(當地郵便所長)을걸어

소송을

제긔하려고준비중이라하며 이사실을들은 일반주민들은 동우편소의 무책임함을분거한다더라(광양)

玉順은어듸로갓나

중국인에게양녀로준딸 가곳을찻고저주야방황

인천 누사뎡(寺町)이십칠번디에사는김어린아(金於引阿)는당년삼십세 가량된녀자는 본래생활이곤난한 가운데에 그남편이병석에누어 거의죽게 되엿스나치료할 도리가업슬뿐아니라 호구할길이 또한막연하야 떼켜간두에 엇지할줄을모르고 한숨과눈물로 지내오다가 생각다못하야 금년

다섯살된

장녀(長女)김옥순(金玉順)을중국인 손옥산(孫玉山)에게양녀로주기로인뎡에참아못할일을 하엿다 누구나부모되고서 떡뜻한품에안긴련진란만한 어린자식을 멀커비리기를 조아하리오마는 남편은병들어인사를 모르고 어린것은묘지를못하야 주먹을 부르짓는그참경을 참아볼수업서서 찰하리중국사람에게양녀라도주어서험벗고굼지나아니하게할작뎡이엿슬뿐아니라중국사람손옥산도인권에 재주하는터임으로 양녀로준다하더라도 자조옥순의 얼골을머할수잇스며

또는장래

의자라는것외지볼수잇겟다는생각으로볼행중에도 만족하게생각하고 그리한것이라한다 또중국사람의 악유하는 관습이조선풍속과 달으기때문에 데일발(足)주리는 것을별려하엿든터 거주불편정형려도 업지아니함으로 조건부로계약을 데결한후에야 양녀로보낸것이라는데 그계약중의 요점은아래와갓다

一、金於引阿는甲으로孫玉山은乙로定하야契約을締結함
一、乙이甲의長女金今玉 (本名玉順)을養育하되中國慣習에依하야 발을주리지못할일
一、乙이萬一中國이나갓는他國으로

移去하는

때는乙은반드시甲에게通知하기로하고何等의通知가無히가는때는甲은곳搜索願을提出하기로함

大正拾四年六月五日
仁川府寺町二十七番地
契約人(甲) 金於引阿㊞
仁川府
契約人(乙) 孫玉山
仁川府桃山町十九番地
立會人 金在順㊞

김옥순의실모(實母)김어린아이는무지몰각한녀자이기때문에그리된것인지 계약의 조건이털끗하지못하고 또중국인의 주소도불분명할뿐아니라붉은『잉크』로지장을 찍은듯하게 계약서일통을 바덧는데 그계약을데결한후칠팔일만에 중국사람은 김옥순을다리고 어데로 종적을감추엇다더라(인천)

四兄弟가 모다監獄生活

가족뎍의범죄

평원군영유면 리화리 (平原郡永柔面梨花里)태생으로 평양부내수옥리(水玉里) 에사는 박학봉(朴學鳳)(三一)은본년삼월이래대화뎡(大和町)모상회에서『폿쏠』두개를 도적한외 삼십히를던하야 도적질을하다가 마츰내지난이십일일에 데포되엿는데 이자는형뎨중에 세사람은범서 감옥생활을 하는중임으로 금번이자를압하야 사형데가 가족뎍으로 감옥사리를 할터이라더라(평양)

釋校移轉問題와

리씨의노력 구개리면의불안은 이로부터안뎡될듯

작년도부터 안변군 사립석왕사학교(安邊釋王寺學校)를새로건축하기위하야 당디사긔리(沙器里)외팔개동리의 유지제씨가석교신축긔성회(釋校新築期成會)를조직하고 자금모집에 노력한다함은 이미루차보도한바 어니와그후촌락의 금권공황으로 말미암아 결국긔성회의 활동은유야무야에 잇섯는데 지난달에몰연히 학교설립자인 석왕사 본말뎡긔총회(釋王寺本末定期總會)의석상에서 구개리주민 유지가학교

신축을

부담하고 건축비로사천오백원을 됴뎡한지 이미오래이나 아즉일천의 수입도보히지아니함뿐더러 오백여 회원을망라한 긔성회의 사업조차오리무중에잇서서 그결과는 실로묘연하야 밋을수업스며 교사협착의 불편은날로심하니 현상유지를폐지하고 원산에 이뎐하야포교긔관에 보조사업으로 별단교육시설을 함이가하다는 것이만장일치로 결의되얏는데 이롱지를 떠한구개리리민들은 자매의장래를 생각하는뜻시에 실로불안상태에잇든 중어뎌니 당디유지리중인(李鍾林)씨는이를유감으로 생각하야 학교설립자측과최후교섭을

개시한

결과 설립자측으로부터 만일구개리에서 륙월삼십일까지 이미계획중인 사천오백원의공사비를모집할수잇스면 어떤결의를 변경하겟다는 승락이잇섯승으로리종림씨는이로부터 분발한시긔에 큰문뎨를 만회코자풍우를가리지아니하고호별방문을 하면서열정으로 주선한결과 목하근삼천여원이나 수합이 되얏승으로그학교에는 서광이 비치엿스며일반인사는 리씨의열정에칭송한다더라(안변)

어린男便을 毒殺未遂

열네살먹은남편에게 양재물을먹엿다고

평북곽산역전조산동 (郭山驛前造山洞)김대호(金大鎬)의 둘재며느리인 귀성군방현면 길하동(龜城郡方峴面吉下洞) 최과부(崔寡婦)의딸 최천금 (崔千金)(一九)은지난십구일정오에본부를독살코자하다가 시모에게 발각되야 죽여라살려라하면서 일대활극이일어나서 수라장을 일우엇섯다는데 그자세한 내용을들은즉 권긔김대호의둘재아들 김상윤(金尙潤)(一四)은당디보통학교삼학년인데작년겨을에권긔

최천금이

와약혼하야금년정월에 설넘까지하얏는데 최천금이는 일각이여삼추로 자긔친가에만가지라하야지난삼월분에도 본가에갓다가 이달십오일에도라와잇다 가지난달음이십륙일에는 석어(石魚)속에 양재물을느어 남편에게먹엿스나 고기맛이쓴外닭에만히먹지안어서아모효력이업스매 또그와가티 두번재계획으로양재물을밥에느어먹이엿스나 밥빗이 누러코또입안이쓰리고압하서먹지못함을

그시모가

보고이상히녁이여 즉시양재물을사서 밥에석거본즉 과연 빗이누래짐으로그제야확실히독살계획이비일비재인줄알고일대살풍경이일어낫는데 최천금은 소할 곽산주재소에 데포되여 취됴중인바경관은범인의 장롱안을 수색한결과 엇던사진세개와 서신왕복도몃장이잇는것을발견하얏는데아마 정부가잇서서 그러한악독한짓을하고자함인듯하다더라(곽산)

總角處女間에

이러니저러니

함남홍원군보청면신덕리 (洪原郡甫靑面新德里) 오의현 (吳義鉉)의집에서는 수일권커녀와총각사이에싸홈을하되커녀는관계한일이업다하고총각측에서는이권부터관계가잇섯스니언제든지너는내안해이다하면서한동안시비가장황하엿섯는데이제자세한말을듯건대그커녀는동면동리오의현(吳義鉉)의 딸집순 (朕順)(一五)이라는 커녀와 동면신평리(新坪里)안국련(安國連)의장자최바위(崔岩)(一八)인총각과이년권에두집부모들도모르게커의리밀약(密約)이잇섯든모양이나이제와서 그

처녀는

절대로 그러한밀약한관계는업고 그총각 최바위(崔岩)가삼년동안올친족가티주야로 다니면서 볼게되니 『옵바』 『누이』하고친철하 지내오든바 작년구월경에 동리귀인녀(貴仁女)라는 녀자가비로소커옴으로권긔집순(朕順)에게간청하기를 네가 커고리고름을떼여서 최바위에게주어라 함으로그커녀는엇지하여 남의고름을 남을 주겟는가하매 간청하든귀인녀의말이 커녀의

고름을

총각이 가저야무슨장사를하면지 뜻대로 된다고함으로 집순이는 매우찬성하면서최바위는 우리친족갓고 항용바커럼 지내는때 장사상에마음매로된다는말을진실로듯고커고리고름을 예여줄일밧게는 나에게 아모허물이업는데 남에게에매한두명을씨워 정조(貞操)를유린하고커하니 이런 긔막힌일이어되잇슴가하야밤낫가슴을쥐여뜨드며 운다는데이말을들은부근에서는 한 이야기거리가되엿다더라(홍원)

◇集會◇

◇革淸團臨時總會 부내혁청단(革淸團)에서는이십팔일오후구시에부내관수동(觀水洞)구십이번디 신흥청년동맹회관 안에서림시총회(臨時總會)를개최한다고

◇基督靑年日曜講話 중앙긔독교청년회(中央基督敎靑年會)의일요강화회 (日曜講話會)는 이십팔일 오후세시부터 그회관에서 아래와가튼 연데와연사로개최하리라고

李今日의必要　李明稙氏

市井雜事

◇十圓자리火燼撈取 충청북도청산 (忠北靑山) 예원정을두고 일뎡한주소가업시 도라다니는김창강(金昌姜)(二六)은이십사일오후세시이십분경에시내이촌동(二村洞) 삼백이번디 은경진(殷景鎭)의집에사람이업는틈을타고들어가서 시가 십원자리화로한개를절취하여가지고도망하다가 룡산서원의손에 데포되엿는데 여죄가만흔듯하다고

◇버린아이 이십오일밤열시경에 시내신교동(新橋洞) 제생원양육부(濟生院養育部)의서편대문압에 생후약륙개월가량된 계집아이한명을 버린자가 잇서밤금보호중인데 아이의 입은옷이비단옷인것과우유(牛乳)통外지넷서 내여버린것을보면 필경그리면에 남모를사정이 잠겨잇는모양임으로 소관 종로서에서는방금범인을엄탐중이라고

◇三少婦乘車逃走 시외고양군한지면상왕십리(上往十里)륙백이십팔번디 조긔준(趙基俊)의안해조성녀(趙姓女)(二五)와그사촌누의(一八)두명은이십사일새벽한시경에그동리 김갑분(金甲粉)(一七)이란녀자와함께 집안식구들의눈을 긔어나와 마침왕십리뎡류장을떠나 광희문으로 향하는뎐차를타고 시내로 도망하엿다는바 필경엇던 못된자의유인을바든모양이라고

◇담배도적 지난이십삼일에광주읍내(廣州邑內)에서환동운송뎜(丸通運送店)에의뢰하야경매경성지국동대문외창고 (專賣京城支局東大門外倉庫)로 보내는연초(煙草)를 운반하여오든인부 김오복(金五福)외 비명이이십오일에 이르러 운반도중에서 그연초로부터 칠십관 (七十貫) 가격구십여원어치를절취한후 도망한것이 발각되야동대문에서는 방금 그범인의자최를찻는중이라고

◇電信柱卒倒 이십륙일오후오시사십분에 서대문밧 죽첨뎡삼뎡목(竹添町三丁目)이백번디압헤잇는 뎐신주(電信柱)『륙삼一八號』가우연히 너머젓다고

휘파람

▲인천에서는생활이곤난하야자긔의친딸을파려먹은모친이잇는데▲그모친은파러먹은딸의간곳을일허버리고주야방황한다고한다▲딸파려먹은어머니를 인정업는 녀자라고나물할 사람도 잇겟지만은▲우리는 그보다도 그의생활이사랑하는친딸을 파려먹게까지 참담하엿슴을 생각하매 그녀자를나물할용긔가업다